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과"…오월단체 '문전박대'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 등
5·18기념문화센터 방문 불구
"경위 설명 선행" 반발에 무산
지역 매장 한산…비판 잇따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폄훼 이벤트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18 단체 등에 사과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건물 밖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영권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일으킨 물의를 오월 단체에 사과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모(母)회사인 신세계그룹의 김수완 부사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측과 만나 사과하려 했다.

김 부사장은 실제 기념문화센터를 찾아왔고 만남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정된 시간 전 오월 단체·기관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오전 9시50분께 김태찬 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스타벅스코리아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으면 사과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젊은 직원의 실수였다는 해명은 꼬리자르기로 보인다"며 "특정한 날에 특정 용어를 쓴 것은 의도가 있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월 영령들을 모욕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분노가 크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 부사장은 오월기억저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사장은 "5·18 영령들께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이벤트는 계열사에서 단독 진행한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정 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결재된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행사는 날짜별로 진행된 텀블러 행사 중 하나였고,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며 "몇 명의 결재를 거쳤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 파악되는 대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들도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오후 1시40분께 광주 한 대학교 내 스타벅스 매장은 평소였으면 자리가 꽉 찰 시간이었음에도 3분의1가량이 비어 있었다.

이곳 매장 관계자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는 데 오늘은 다소 손님이 줄었다"며 말끝을 흘렸다.

동구 지역 내 스타벅스 매장 2곳의 관계자도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게 느껴진다"며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날부터 스타벅스코리아 측이 내놓은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윤주(63·여)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의 참상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정용진 회장의 과거 행적을 보면 우연이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닐 것이다. 광주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연상 기자

'PTSD 공상' 인정 안된 경찰관 트라우마 시달리다 숨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24년 4월 피의자 체포 중 흉기에 부상
유가족 "순직 인정·정신적 힘듦 관심을…"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피의자를 검거하다 크게 다친 경찰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50대) 경감이 전날 사망했다.

A 경감은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4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다 그가 휘두른 톱에 부상당했다.

이 때 A 경감 외에도 두 명의 경찰관이 다치면서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지속적인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후 A 경감은 공상(公傷) 대상자로 인정받아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다. 단, 이는 외상에만 그쳤고 정신적인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 경감의 유가족들은 PTSD와 관련된 병원 진료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위한 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A 경감의 아내는 "부상 이후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렸고, 기억을 잘 못하게 됐다"며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블랙박스로 신호 위반을 하진 않았는지, 가로수를 들이받진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했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밤에 잠도 잘 못잤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다치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힘들다며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등 극단적인 말도 많이 했었다"고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다.

A 경감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며 "흉기에 당했으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클 것인데, (국가가) 이를 장기간 봐주면서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모자는 또 "현재로선 순직이 인정되길 바란다"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경찰 조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 경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약 40분간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광주경찰청은 A 경감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는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5개월간 감감무소식" 광주대표도서관 유족 '분통'

사고 원인 규명 지연 등 지적
광주시청서 내일까지 1인 시위

4명의 노동자가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이후 5개월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 규명 등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희생자 유족 일동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9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명확한 사고 원인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아닌 침묵과 회피 뿐"이라고 토로했다.

고(故) 서청운씨의 동생 정운씨는 "대통령도, 광주시장도, 시공사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4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구속된 이가 하나도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학동 참사와 화정동 붕괴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광주시와 시공사는 책임 회피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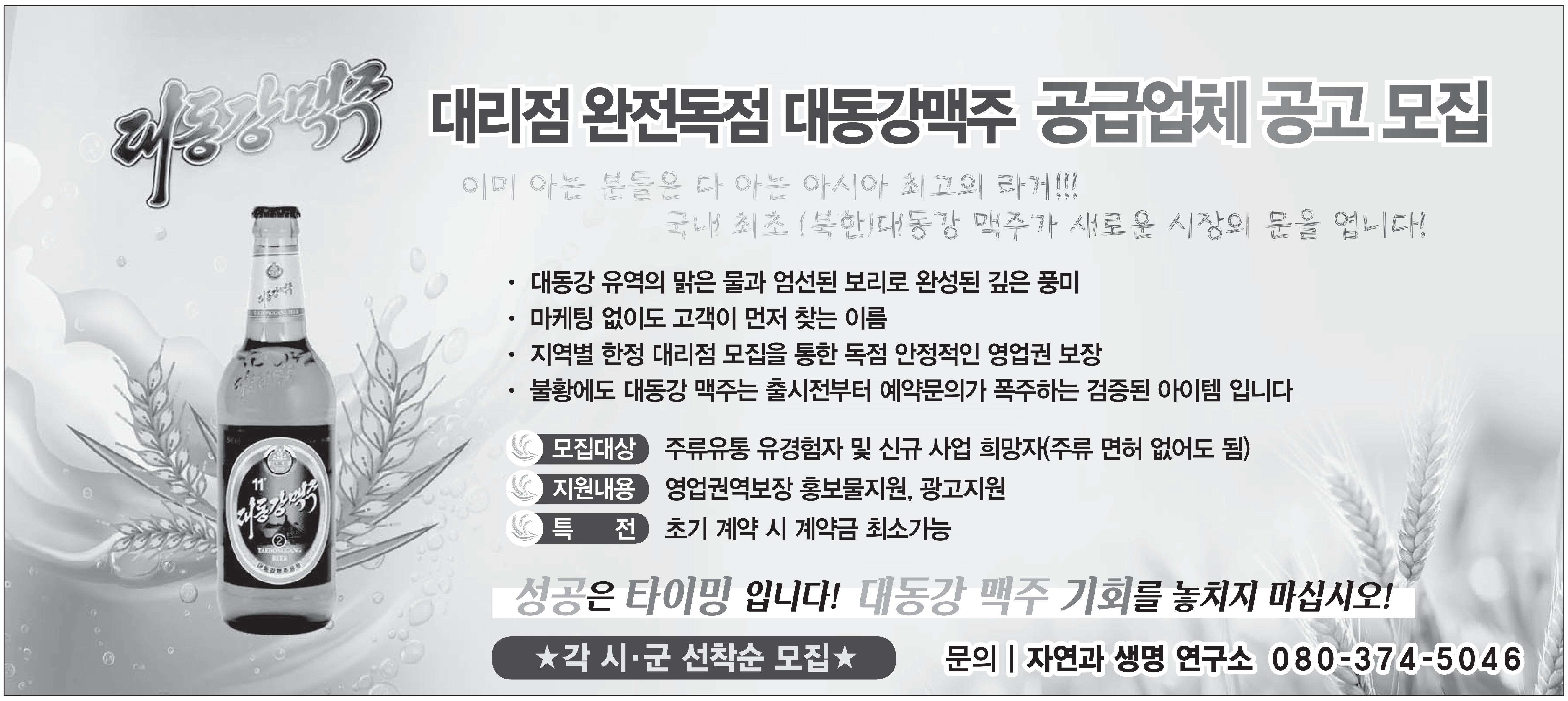
한편 유족들과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26-27일은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찬웅 기자

목포시청 청소차 인도 돌진…보행자 중상

목포시 소속의 청소차가 주행 중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분께 목포시 석현동 한 삼거리에서 A(50대)씨가 몰던 5t 청소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전신주와 가로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B(6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소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C(40대)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CMYK